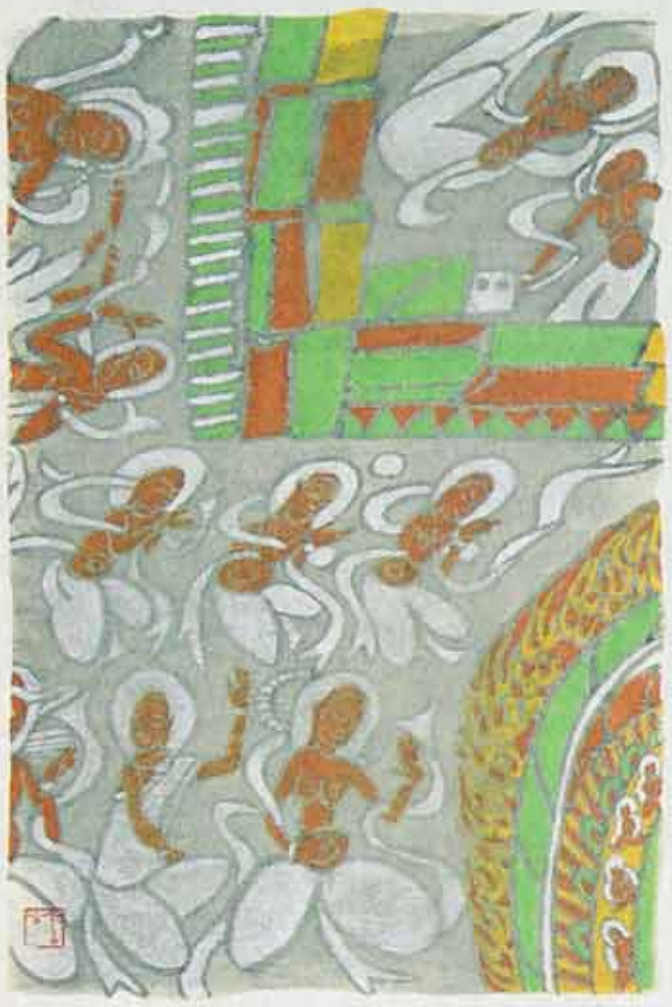
고은 불교대하소설



73

막고굴 입실

"여기서 한경지 뛰어 넘자" 일행은 1080개 굴을 도량으로…

"이 큰 사막이란 한 마디로 큰 갈입니다."

"정녕 그렇겠습니다. 도리어른!"

이라고 합두가 도리를 위로하는 것 같은 어조로 말대꾸를 하였다.

과연 그들 일행이 모래와 자갈이 어울려서 굳어진 파파한 땅을 한동안 걸어가자 거기에 영사산 끝부분의 낮으막한 모래산 아래로 어떤 전율(戰慄)을 불러일으키는 간담이 서늘한 긴 절벽의 굴들이 나타났다.

바야흐로 아침햇발이 그 일대를 집중적으로 비춰서 한층 더 적나라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여기요!"

라고 도리가 큰 소리로 말하였다.

모래먼지를 뒤집어 쓴 일행은 굴들을 바라보며 머뭇거리고 있었다.

도리가 말하였다.

"이곳이 막고굴입니다. 이곳에는 1천80개의 굴이 뚫려있습니다. 우리는 이 굴안에서 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떠나도 좋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막는 일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행 중의 어느 누구도 이곳 굴안에 들어가 사는 일에도 아무런 확신이 없는 것처럼 이곳을 떠날만한 용기도 없었던 것이다. 위글족 대왕이 혼자 투덜거렸고 수염장이가 난감하다는 표정을 내비친 것 말고는 아무도 떠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도리의 지도력에 순응하거나 이 막고굴의 삶에 귀의한다고 여길 수 없었다. 이곳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 떠날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 뿐 아니라 20명 미만의 그들 가운데서 돈황이나 이곳 막고굴 일대에 익숙한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 어디로 떠나고 싶어도 그들에게는 길이 없는 셈이다.

도리가 사막을 큰 길이라고 말했지만 그 길은 바로 방황의 길일 수 밖에 없다.

수염장이가 혼자 중얼거렸다.

"…동서남북이라도 짐작할 때까지 여기서 노닥거릴 수 밖에…"

그러자 옆의 사나이가 수염장이에게 한마디 알려주었다.

"이곳은 바로 중노릇이나 하는 곳이라더군. 저 굴 하나씩 차지하고 실컷 주력(呪力)에나 몰두하다가 이 마껍질이 벗겨질 신세란 말이지."

"제기럴… 나는 도무지 천축의 석가씨가 마음에 안 들어."

"…"

"왜 산 목숨을 늘 앉아있게 한단 말이야?"

그들은 다른 사람이 들을지도 모른다고 여겼는지 더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다.

도리가 대왕들, 아니 사람들 하나하나를 살펴보았다.

"이 막고굴 도량은 누가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나 아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이 막고굴에는 강도 5백명이 열심히 공부하여 부처를 이룬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벽화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떨거지가 만들어진 뒤의 어느날 밤 꿈에 바로 이 막고굴 벽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한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곳 막고굴의 하나를 여기에 오기 전에 꿈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니, 내 기억 가운데는 어린 시절에 한번 온 적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도리의 부쩍 산만해진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만화 합두 불이야말로 도리가 그들의 오랜 친구인 것처럼 여겨질 정도였다.

특 히 불이는 도리가 전생의 누구일까? 화살에 맞은 사슴처럼 어떤 통증이 생기면서 의문을 일으켰다.

"누구였을까?"

그는 의문을 더하였다.

"누구일까?"

그런 의문이 꼬리를 이어가다가 불현듯 전생 무욕도시절의 도반 파현의 모습을 아슴프레 떠올렸다.

파현이라면 난파선에서 구조되었던 무전과 함께 바다에서 살았던 사공이 아닌가. 그 파현은 그 뒤로 어떤 행로로 세상의 문화에 몸을 내맡겼던가. 아니, 어떤 세월을 보내며 이제 이 청나라 변방의 임자 없는 사막에서 강도집단에 끼어들었단 말인가.

그런 전생이나 과거분 아니라 그 전생과 과거로 말미암아 미래와 내생까지도 새삼 캄캄해지는 것을 실감한 불이는 합두에게 가만히 물어보았다.

"저분… 어딘지 낯익은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인연이라면 누구 하나 낯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분… 혹시 가까운 전생에서 우리와 함께 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이겠지요. 아무래도 바다냄새가 나는 것이… 이 사막도 모래의 바다이기는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때 불이가 몹시 반색을 하는 것이었다.

> "강도 5백명이 부처를 이룬 막고굴 벽화를 여기 오기전 어느날 밤 꿈에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도리의 얼굴에서 불이는 무욕도 도반 파현의 모습을…

"그렇지! 정녕 그래요. 무욕도시절일 것입니다."

"무욕도! 그렇겠습니다. 그때도 도반이겠습니다."

"아 합두님과 내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두사람의 이같은 합의는 더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도리가 사람들을 짝을 짓거나 혼자가 되게하거나 해서 각자가 살 굴을 지정해 주는 일에 서둘렀기 때문이다.

돈황 막고굴은 언제부터 이곳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 이 세상의 누구도 알고 있지 않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저 곤륜산관을 만난 구도승으로서는 그가 이른 곳 이야말로 거룩한 곳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의 일행을 구도여행의 먼길을 단념시킨 뒤 우선 그 일대의 여러 오아시스국가의 왕을 설득하여 의식(衣食)을 대계한 뒤 명사산 기슭을 잘라낸 단면의 절벽에 굴을 파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명 사산의 사정은 왕모래가 진흙과 섞여 다져진 역암(礫岩)이므로 불상을 새길 수도 없고 거기에 바로 그림을 그릴 수도 없었다.

그래서 벽면에 흙을 발라 거기에 벽화를 그리게 되었고 월아천 강바닥에서 채취한 흙을 이겨 불상을 만들 수 있었다.

흙으로 만든다 해도 그저 흙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나무골재에 풀로 곤 새끼로 동여매고 강바닥의 찰진 흙을 삼베나 모래흙과 섞어 아슬아슬하게 형상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거기에 백토를 발라 마감한 뒤에 색채나 금박을 입혔을 때 그것이 돈황 채소(彩塑)의 거의 아무도 모르는 대향연을 성취한 것이다.

도리는 만화와 불이 합두에게 북대굴(北大窟)의 커다란 방을 배당하였다. 그 방안에는 몇개의 승방이 독립되어 있으며 그 규모가 웅장하였다. 도리가 처음에 하던 말을 바꾸어 말하였다. 어떤 것이 거짓말인가.

"이 방은 본존불도 장엄하지만 벽의 변상도(變相圖)가 더욱 다채로운 방입니다. 사실은… 내가 어린 시절 숙부를 따라 이곳 막고굴을 참배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이곳에서 한 경지를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당신들과 함께 공부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세사람은 도리의 배려로 좋은 방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도리는 그의 전생이 무욕도의 파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불이는 합두에게 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눈짓을 하였다. 그런데 합두는 굳이 그런 일이나 일삼는 것이 괜히 한가한 노릇이 아니냐는 듯이 그다지 호응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합두가 북대굴 안장에 있는 승방을 그녀 자신의 거처로 삼았는지 그 방안으로 들어갔다. 전실(前室)과 본실(本室) 그리고 연도(羨道)에는 온통 채색그림이었다.

그림 · 조향숙

다음날 새벽 먼동이 트기 전인데 도리는 각 천막 안의 사람들을 깨웠다. 딱딱한 전병과 말린 양고기 한 쪽 씩을 먹은 다음 모래산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정작 사람보다 낙타 쪽이 그런 비탈에서 당황하였다. 불이가 그런 낙타 몇마리를 이끌고 갈지자로 내려가는 것을 본 다음에야 낙타를 맡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내려갔다.

낙타를 맡지 않았다면 단숨에 저 아래 월아천에까지 쭈르르 내려갔을 것이다.

월아천 물가에 일행이 이르렀을 때에야 동쪽 모래산 위의 하늘에 붉은 기운의 먼동이 트기 시작하였다. 그 어둠과 붉은 빛깔이 뒤섞인 기운은 마치 명치 끝이 쑤시는 통증과도 같았다.

월아천의 물로 얼굴을 씻었다. 각자의 물주머니에 그 물을 채웠다.

"갑시다."

라고 도리가 낙타에 올라탔다.

일행 중의 한 사람이 도리의 의도를 얼핏 짐작하고 그동안 확보해서 따로 낙타에 싣고 온 값비싼 장물(贓物)들을 어떻게 처분할까에 대해서 물었다.

"그대로 가져갑시다. 쓰여질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월아천을 따라가며 아직도 간밤의 어둠에서 헤어날줄 모르는 삼위산 비탈의 그 결단과도 같은 먼동 무렵의 고요를 지나면서 막고굴에 다가들고 있었다.

"2천년의 세월을 한 몸에 품어야겠습니다."

라고 도리가 합두에게 속삭였다. 그것은 속삭임이라기보다 어떤 감격을 참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이어서 속삭였다.

"나는 이곳에 오기 위해서 이제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 혼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와 함께 오는 길이야말로 큰 길입니다."

"…"

그 마음을 바쳐라/신국판 267쪽/값7,500원

김재웅 법사의 세 번째 책 출간!

그 마음을 바쳐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지혜를 가로막는 일이니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버리라고 하면 아까울 것이니 그 마음을 바쳐라.
바치는 마음을 연습해서 남을 위해 살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마음이 우주에 가득차서 결국 부처님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 어디에 내가 있고 또 내가 있는가?
너, 나 없는 그냥 한마음 아닌가.

〈백 신생님 법문에2〉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법사의 첫 번째 책 신국판 297쪽/값3,800원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진 영원의 향로를 한걸음 한걸음 디디는 모든 길 가는 이들의 고통과 그 해탈을 위하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김재웅 법사의 두번째 책 신국판 272쪽/값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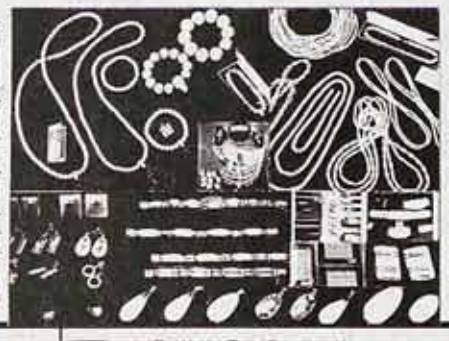
순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변비,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을 치유하고 집중력, 판단력, 창의력, 기억력 아이큐 학습능률을 증대하며 선배과 기도에도 좋습니다. 주저치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 세계 유일한 보석 옥산가 백옥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한국일보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서울신문

春川産 白玉 성인병에 卓效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뜨랑방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생생한 법어, 생생한 불교사료를 간직할 수 있는 기회!!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1호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합본 제 1호 를 발간하였습니다.

주옥 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합본호 1집 :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10.15) ▶ 제59호(95.12.27)
■가 격 : 50,000원 (발송비 별도)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02)737-8881 팩스:(02)737-0697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주)현대불교신문사 (代)737-8881